

‘화순 사평빨래방’ 개관 1년 만에 이용률 194% 증가

빨래 걱정 없는 우리 동네...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으로 화순군 위상 높여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일 취약계층 및 화순군민을 위해 조성된 「화순 사평빨래방」이 2024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이용률이 194% 증가했다고 밝혔다.

「화순 사평빨래방」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짧은 운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순 사평빨래방」화순군민의 차별화된 모델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전(全) 군민 대상 지자체 직영 대형 빨래방’을 조성

해 차별화된 모델을 선보였다. 화순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65평 규모의 작업장과 별도 외부건조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하루 150~200채 대량의 이불 세탁이 가능하다.

또한 시설은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금으로 구축하고, 운영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보조금으로 활용해 지자체 예산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 군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현장점검으로 신뢰 높여

「화순 사평빨래방」은 세탁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이장, 부녀회장, 사회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세탁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한 신뢰도 향상이 추가 수요로 이어져,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불 세탁 서비스 제공 횟수를 마을 별 4회에서 6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24년 9,565채에서 2025년 18,570채로 이불 세탁량이 증가했으며, 이용 세대 역시 3,920가구에서 7,574가구로 늘어나 190~195%가량 이용률 증가의 성과를 거뒀다.

현장을 방문한 동북면 부녀회장은 “처

음에는 세탁이 제대로 되는지 걱정이 많았지만, 현장을 방문해 세탁 과정을 직접 보니 세탁 시설 규모와 위생 관리가 매우 체계적이었다”라며,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라고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완도군, 한국관광공사 ‘리셋 여행’ 콘텐츠로 꼽혀

해양치유료 몸과 마음 치유하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 여행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완도군을 ‘리셋 여행’ 콘텐츠로 추천하면서 바쁜 일상 속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단순한 여행지 소개가 아닌 여행자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담은 콘텐츠인 ‘리셋 여행’을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했다.

‘리셋 여행’은 일상의 리듬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삶의 리듬을 설계하기 위해 떠나는 웰니스 중심의 여행 방식이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해양치유 1번지’를 주제로 한 완도의 리셋 여행은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의 테라피를 즐기고, ‘해양치유 밥상’으로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며, 신지 명사십리와 약산 해안 치

유의 숲 등 청정한 자연 속을 거닐며 힐링하는 콘셉트이다.

특히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12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

또한 문화·기후 치유, 맨발 걷기,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 치유 목적의 방문·체험객이 92만 명이 넘어 완도군이 ‘우리나라 대표 치유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유 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해 누구나 찾고 싶은 리셋 여행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셋 여행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의 ‘내 요즘 여행 테마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2026년 새해를 맞아 나주시가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방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화합과 도약의 출발을 알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새해 희망 메시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도·시

나주시, 2026년 신년 인사회 개최... 지역사회와 새해 비전 공유

새해 시정 방향 공유, 시민 체감 변화와 실질적 도약 다짐

의원,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본 행사에 앞서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이 펼쳐져 새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더했으며 ‘2026 나주 방문의 해’ 홍보영상을 통해 관광도시 나주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에 이어 윤병태 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이재남 시장의

신년사가 차례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지난해 나주시의 변화와 성과를 되짚고 새해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어 케이크 커팅식과 건배제의, 신년 덕담 나눔 시간이 진행되며 참석자 간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가 이어져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제76기 광양시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1월 12~16일 인터넷 접수... 한복만들기·쥬바댄스 등 신규 강좌 운영

광양시 여성문화센터는 2026년도 첫 학기인 제76기 광양시 문화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 문화대학은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총 4개 과정 38개 과목으로 운영되며, 총 735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과정은 ▲자격증 과정 11과목, ▲기술창업 과정 10과목, ▲문화취미 과정 12과목, ▲야간직장인 과정 5과목으로 나뉘며, 한복 만들기와 쥬바댄스 등 신규 강좌도 포함됐다. 수강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되며, 모집 정원의 80%는 온라인으로, 20%는 현장 접수로 선착순 모집한다.

온라인 접수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광양시청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여성문화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운영된다.

교육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 후 48시간 이내 수강료를 결제해야 등록이 완료된다.

한편, 2026년부터는 수강료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대상자 외에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적용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문화대학은 다양한 과목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관심과 여건에 맞는 배움을 선택할 수 있다”며 “새해를 맞아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교육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순천시, 이상기후 선제 대응... 10억원 예산확보로 농가 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신기술 보급 등 종합 추진

순천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 이변이 커지면서 노지 과수 재배 농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도비 및 시비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농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저온, 폭염,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잦아지며 개화기 저온 피해, 병해충 확산, 낙과 등 과수 농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불안이 커지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순천시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비 4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 총 10억 원이 넘는 예

산을 확보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계획이다.

확보된 예산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5억 5천만원)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3억 5천만원) △과수 신기술 및 재배 기술 보급(1억 5천만원) △현장 중심의 기술 지도와 농가 컨설팅 강화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후는 농업 전방에 상시적인 위협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도비와 시비를 적극 확보해 과수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호 기자

강진군에서 창업하면 최대 240만 원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월 최대 20만 원, 시작부터 든든하게 강진군이 함께해요

강진군이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강진군에서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세 또는 전세 계약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고정비용이 절감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창업한 소상공인 중,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들이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방식은 월세는 납부액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전세는 전세대출 이자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형태다.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23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23년 16개소, 2024년 10개소, 2025년 10개소 총 36개

소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2026년에는 총 10개소를 선정한다. 신청은 공고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상시모집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또는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4층)에 방문 접수하거나,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참여 신청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또는 공공사업 피해자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박진희 지역경제연결팀장은 “창업 초기 임대료 부담은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철 기자

